



### Who am I? What am I living for?

Peace to all! I am Sister Carol Dougherty.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on September 8, 1953. I have been blessed with many experiences which helped me realize that Justice is essential to living the Gospel.



Teaching in many areas of the country and some summers in Appalachia has helped me to become aware of how important it is to search for the root causes of poverty. It is imperative to work with the people affected, to change unjust structures that keep people oppressed. Economic injustice is often the root cause of keeping people oppressed. The poor are kept fighting the

poor while they are really being controlled by unseen powers. Charity is essential but we must also empower the poor and work with them to change the unjust systems.

When Cesar Chavez and the United Farm Workers came across the country asking Religious women to work with them (as opposed to working for them) to change the unjust system that kept them in slavery, the community gave me permission to be engaged in this ministry. This experience deepened my



awareness of the long, arduous journey to freedom. One time when Frank Ortiz, a farmworker, and I had time to share. He said, "You are the only gringo I've worked with who understands what self-determination is." Isaiah 61:1 has spoken to me much of my life. The Spirit moved me to seek the oppressed, those shunned by society, the lonely, the broken hearted - those at the bottom of the ladder.

Parish Social Ministry found me out in the streets and in homes listening to hurt, broken people and being an advocate, working with them to get the necessities of life. I then had the privilege of being called to be a voice for the voiceless as a legal guardian for the elderly poor who were abandoned, abused or had no one – being an advocate for them. One of the blessings was that they realized in some way that someone cared about them until they died. In later years, I've ministered with immigrants and other oppressed people. I've also realized that just being a presence of God's love, care, joy, compassion and inclusion gives credence to the down and out that they are God's beloved. A driving force in my life of reaching out to those who have been



rejected has been the example of my Dad. When I asked him one time about how good he was to a homeless, ostracized person, his response was, "Carol, when someone is down, out and in the gutter, you don't leave them there. You pick them up and walk with them".





나는 누구일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두에게 평화를 빕니다! 저는 캐롤 도허티 Carol Dougherty 수녀입니다. 1953년 9월 8일에 수녀회에 입회하여 많은 체험을 통해 복음을 살아가는데 정의가 필수요소라는 점을 깨닫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 해 여름을 미국 동부 애팔래치아 지방의 여러 지역에서 가르친 경험으로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억압하는 불의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경제적 불공정은 종종 사람들을 억압하는 근원이 됩니다. 가난한 이들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통제당하면서 계속해서 가난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지만 우리는 또한 가난한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불의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해야만 합니다.

노동 운동가인 세자르 차베스 Cesar Chavez와 미국 농장 노동자 조합이 미국 전 지역을 돌면서 여성 수도자들에게 노동자들을 노예화하는 부당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가 아닌 노동자들과 함께 일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수도회에서 제가 이 일에 참여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저는 자유를 향한 길고도 힘든 여정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농장 노동자인 프랭크 오티즈 Frank Ortiz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저에게 "수녀님은 내가 함께 일한 사람 중에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유일한 미국인이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은 제 삶의 많은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이 나에게 억압받은 이들과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 외로운 이들, 마음이 부서진



이들, 곧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들을 찾으려 하셨습니다.

본당 사회복지 사도직을 하면서 거리와 가정에서 상처받은 이들에게 귀 기울이며 그들의 옹호자가 되어 주고, 생활필수품을 얻기 위해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는 버림받고 학대를 받거나 홀로 살아가는 가난한 노인들의 법적

보호자로서 자신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목소리, 즉 그들의 옹호자가 되어주는 특별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누군가가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 느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지요. 그 후에도 저는 이민자들과 다른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단지 하느님의 사랑과 보살핌, 기쁨, 연민, 포용이 자기 안에 현존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준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거부당한 이들과 함께 하는 제 삶의 원동력은 저의 아버지가 보여주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버지께 소외된 이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잘 해주시는지 여쭙봤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캐롤, 누군가가 길거리에 버려진 채 쓰러져 있을 때 그대로 두고 가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걸어가거라."

